

# 목포, 공공기관 유치 원도심 회복 기대

### 통일센터·전남 청소년미래재단·스마일센터 3곳

### 방문객 대폭 늘듯...용해동 옛 경찰서 인근 활성화

목포시가 전남도 공공기관을 대거 유치해 원도심인 용해동 옛 목포경찰서 인근 활성화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김종식 목포시장은 박문옥 도의원, 우기중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장등과 협력해 통일부의 통일센터, 여성가족부의 전남청소년미래재단,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전남도 공공기관을 목포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기관들이 들어설 곳이 용해동의 (구)목포경찰서 부지라는 점에서 이번

유치는 더욱 고무적이다.

(구)목포경찰서 부지는 목포경찰서가 지난 2017년 9월 유달경계장 인근의 신축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빈집률로 방치돼 왔다.

이로 인해 지난 2011년 5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광주지방경찰청 목포지청의 옥압동 신청사 이전으로 시작된 용해동 상권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됐다.

시는 공공청사 이전으로 인한 용해동 공동화의 상징이 된 (구)목포경찰서 부

지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공공기관 유치로 난제를 결국 해결했다.

3개 기관의 상주인원은 160명 이상으로 방문객 등 유동인구까지 감안하면 이번 유치는 인근 상권 활성화에 큰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구)목포경찰서 토지매입 및 철거비로 25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일센터는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으로 통일체험 및 전시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전남여성플라자에 위치해 있는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지상 3층 규모로 청사를 건립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

이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충북 등 전국 14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전남은 스마일센터가 없어 지난 2013년 설립된 '광주 스마일센터'를 활용 중이다.

김종식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인데 (구)목포경찰서 부지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법원·검찰청 부지에 건립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과 함께 용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강진 사의재 마당극 '조만간' 인기

올해의 관광 도시인 강진군 강진을 사의재 마당에서 매주 펼쳐지는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의 줄임말) 마당극공연이 관객들과 어우러져 신명난 잔치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최근 공연 장면. /강진군 제공

### 신안, 귀어귀촌 박람회 참가

신안군은 지난 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년 귀어·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박람회 기간 동안 정청 수산물과 특산물 등을 전시, 홍보하고 귀어·귀촌 지원 안내 관련 책자와 홍보물 배부, 홍보 동영상 상영했다.

특히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자에게 1대1 맞춤 상담을 실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등 내실 있는 상담 창구를 운영했다.

박우량 군수는 "귀어·귀촌 희망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하기 좋은 신안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귀어·귀촌 박람회는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했다. /신안=이주열기자

# 해남, 3·1운동 민족대표 양한묵 기념관 조성

### 내일 생가 복원 준공식...독립운동 교육장 탈바꿈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유일한 호남 출신인 지강 양한묵 선생(1862-1919)의 생가 독립운동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옥천면 영신리에 조성한 지강 양한묵 선생 생가와 기념관 준공을 마치고, 오는 12일 개관식을 갖는다.

양한묵 선생은 해남 옥천면 영신마을에서 태어나 19세에 외가가 있는 화순 농주로 이사하기 전까지 해남에 거주했다.

기미년 3·1운동 당시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서 개최된 독립선언식에 참석한 민족대표 33인 중 한사람으로 천도교계를 대표해 서명하고 불잡혀 57세의 나이에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했다.

옥중에서 숨진 유일한 민족대표로서 '독립을 계획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고 가혹한 고문으로 1919년 5월 26일 생을 마감했다.

영신마을에는 선생이 공부하던 '소심재'를 비롯해 사당 덕축사, 1992년 세워진 지강양한묵선생 순국비 등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해남군은 2015년부터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복원된 생가는 60.42㎡ 면적으로, 안채와 사랑채를 비롯해 당시 농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디딜방아와 장독대, 기존 생가 터에 있던 수령 150년의 감나무 등을 보존했다.

81㎡ 면적의 기념관은 서대문 형무소의 이미지를 가져와 지은 건물로 양한묵 흉상, 독립선언서 사본, 영상 화면 등이



3·1운동 민족대표 중 유일한 호남출신인 지강 양한묵 선생의 생가가 복원된다. 사진은 생가 기념관 내부. /해남군 제공

전시돼 있다.

개관 기념식은 12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양한묵 선생 후손을 비롯해 명현관 군수 등 관공계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제1회 강진교육 한마당에서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실시했다. /강진군 제공

# 강진 '찾아가는 거리상담' 인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존감 알리기 진행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제1회 강진교육 한마당에서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의 상담 부스에서는 '넘어져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자존감 알리기 ▲로젠버그 자존감 지수 검사 ▲자존감 및 있는 이면 사업을 총 사업비 147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42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3개소와 관로 10.5km를 설치하게 된다.

사업을 통해 오·우수 분류화로 정화조를 폐쇄하고, 공공하수도로 연결해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아 정화, 하수를 법정수질 이하로 방류해 가학천

는 시간이었다"며 "강진 청소년들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키우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및 부모상담,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운영,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진로탐색, 아웃리치, 심리검사, 학교폭력예방교육, 위기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61-432-1388)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한태선 기자

# 해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박차

### 현산 시등·하수처리장 등 설비

해남군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현산 시등, 송지 방치, 계곡 가학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47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42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3개소와 관로 10.5km를 설치하게 된다.

사업을 통해 오·우수 분류화로 정화조를 폐쇄하고, 공공하수도로 연결해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아 정화, 하수를 법정수질 이하로 방류해 가학천

및 서해연안의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각 가구에 설치된 개인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악취를 개선하고, 매년 정화조의 분뇨 수거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12개 마을, 613세대 1,148명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관내 4개소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황산 한자마을하수처리시설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현산 시등과 송지 방치는 내년 12월, 계곡 가학은 2021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 목포 관광혁신대상 콘텐츠부문 '최우수'

###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 사업 높은 평가

목포시는 역점 추진 중인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 사업'이 2019 한국관광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관광혁신대상은 유네스코관광기구(UNWTO)와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서울시, 한국관광학회, 국제관광인포럼, 한국국제관광전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4월 공동 제정한 국내 최초 관광산업 국제어워드다.

올해는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인프

라 등 6개 부문 11개 지자체·기관·업체 등이 선정됐다.

목포시는 음식에 대한 수요층 관심이 증폭되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목포가 비교우위 경쟁력을 가진 음식을 전략적으로 브랜드화해 맛의 분향으로서 위상을 정립했다.

나아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맛의 도시 목포'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목포=박승경 기자

## 클릭! 고향 소식



### 목포 금연의 날 합동 캠페인

목포시는 최근 제32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목포시내 곳곳에서 금연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목포교육지원청과 중·고등학교 학생, 교직원 등 100여명이 참

여했다. 관계자는 "전자담배의 등장과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율 증가 등 변화하는 흡연 환경에 대응해 금연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 강진 SNS 활용 홍보 교육

강진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SNS 특강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튜브 사용법에 대한 이해와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 이날의 특강은 정

보와 문화가 오가는 글로벌한 소통의 통로인 유튜브 사용법 숙지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강진'을 위해 홍보의 핵심 자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강진=한태선 기자



### 영암 금정면 농촌일손 돕기

영암군 금정면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10일 면에 따르면 직원들이 동참한 30여명이 오디수확 작업을 실시했다.

오디를 재배하는 여성농업인 신도(57)씨는 "오디 수확기에 일손이 부족해 걱정하고 있었는데 공직자들이 도와줘서 적기에 수확, 판매에 도움이 됐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영암=최복섭 기자